

서재웅

‘멘붕’ KIA

(멘탈 붕괴)

타선 침묵·수비 구멍에 마운드까지 무너져

프로야구 전망대

LG·한화 6연전 ... 연패탈출 관심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심상치 않다. KIA는 앤서니-소사-김진우-윤석민-서재웅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을 앞세워 10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행진을 하는 등 후반기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주목 받았다.

‘선발 야구’는 KIA의 2012시즌 유일한 장점이자 남은 순위싸움의 마지막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무기력한 타선에 KIA의 마지막 부부인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비에 두 경기를 쉰 KIA는 지난주 4경기를 치렀다. 서재웅·소사·앤서니·김진우가 출격했지만 모두 승리를 챙기는 데는 실패했다. 퀄리티스타트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서재웅과 김진우는 5회도 지키지 못했다. 서재웅이 16일 LG전에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고, 19일 SK전에 나선 김진우는 4회 2사에서 강판됐다. 김광현과의 ‘괴물’ 대결에서 2회까지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광범한 기싸움을 펼쳤지만 3회 사사구 2개를 허용하는 등 갑작스런 난조를 보였다. 손가락에 물집까지 잡히면서 조기 강판됐다.

앤서니와 소사에게도 승운은 따르지 않았다. 17일 SK전 선발로 나선 소사는 구위와 스피드에서 SK 선발 부시에 앞섰지만 6회 먼저 무너졌다. 부시는 공·수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인 야수진의 든든한 지원 속에 9회 1사까지 완봉행진을 하며 승리를 가져갔다. 사직에서 롯데와 연장 혈투를 벌이며 오전 5시가 넘어야 홈에 도착했던 SK타자들은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승부로 KIA 마운드를 공략했다.

그러나 앤서니가 5와3분의2이닝 2실점(1자책)으로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2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101	58	41	2	0.586	0	3승
2 롯데	101	52	45	4	0.536	5.0	2승
3 SK	101	53	46	2	0.535	5.0	5승
4 두산	101	53	47	1	0.530	5.5	4패
5 KIA	96	45	47	4	0.489	9.5	6패
6 넥센	99	47	50	2	0.485	10.0	2패
7 LG	100	43	54	3	0.443	14.0	1패
8 한화	101	39	60	2	0.394	19.0	1승

선방했지만 KIA 타선이 1점을 만들어내는데 그치며 역시 1-2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18일에는 1루수 조영훈의 실책이 빌미가 돼 실점을 기록했고, 19일에는 좌익수 윤완주의 결정적인 송구 실책이 나왔다. 공·수에서 투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마운드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민 마무리’ 초강수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후유증도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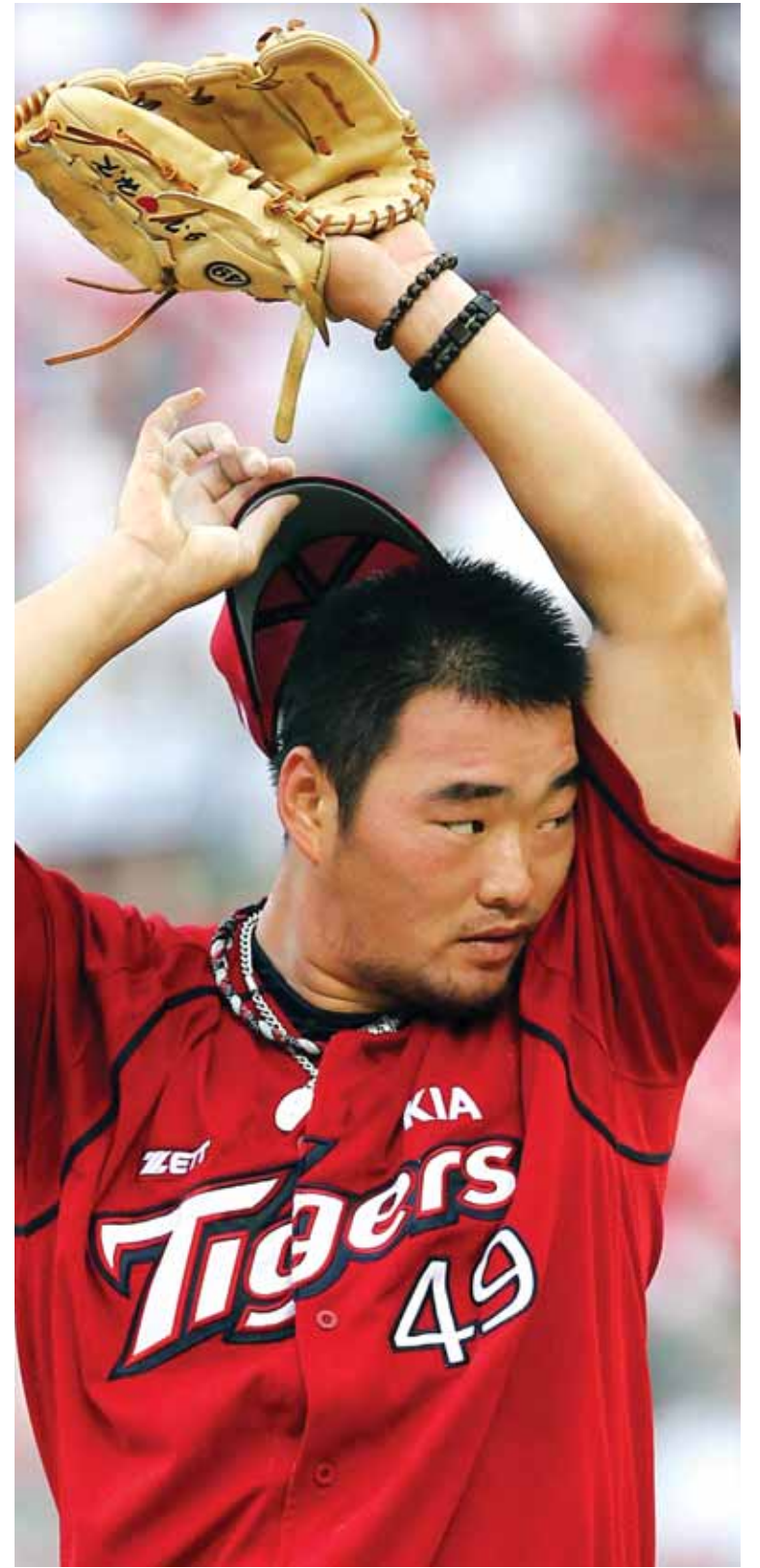
선동열 감독은 최한남·양현종이 복통 증세를 호소하자 SK전에 윤석민을 임시 마무리로 대기 시켰다. 윤석민은 18일 1-2로 뒤진 8회말 등판해 삼자범퇴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타자들은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연패를 끊는데 실패한 KIA는 결국 계획과 달리 19일에도 윤석민을 불펜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타선이 단 한 점도 뽑지 못하면서 출격은 하지 못했다. 21일 LG전 선발 등판도 무산됐다.

KIA는 주중 LG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불펜으로 뛰던 양현종이 윤석민 대신 가장 먼저 선발로 출격한다.

원정 6연전을 치르고 온 KIA는 20일 선수단을 소집해 특별 훈련을 했다. 타선이 흔들리는 마운드를 지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아시아시리즈’ 조편성 11월 8일부터 6팀 열전

아시아 야구의 정상을 가리는 ‘아시아시리즈 2012’가 올해부터 조별리그 전을 치러 우승팀을 결정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11월 8~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리즈 2012’의 조 편성 및 경기일정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아시아시리즈에는 한국·일본·대만·중국·호주 등 5개국에서 6개 팀이 참가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시리즈 우승팀(이하 KBO1)과 사직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롯데 자이언츠(롯데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 경우 준우승팀, 이하 KBO2)가 대표로 나선다.

대만·중국·일본에서는 올시즌 각 리그 우승팀이 참가하고, 호주에서는 2011~2012시즌 우승팀인 퍼스 히트스가 참가가 확정됐다.

6개 팀은 2개조로 나뉘어 A조는 KBO1, 대만·중국 리그의 우승팀, B조는 KBO2, 일본 리그 우승팀, 퍼스 히트스로 편성됐다.

각 팀은 조별 풀리그를 치르고 나서 각 조 1위 팀이 결승에서 만나 아시아 클럽 챔피언의 최강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들의 예선 경기는 흥행을 고려해 4경기 중 3경기가 야간경기로 치러진다.

대회 첫 날인 11월8일 저녁 7시에는 KBO 2팀과 퍼스 히트스가, 다음날인 9일 같은 시간에는 KBO1팀과 대만 우승팀이 맞붙는다. 예선 마지막 날인 10일 낮 12시에는 KBO2 팀과 일본 우승팀이 경기를 치르고, KBO1 팀과 중국 우승팀의 경기는 오후 7시로 예정 돼 있다.

결승전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예선에서 순연되는 경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날인 12일로 연기된다. 한국팀은 예선과 결승에서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1루 더그아웃을 사용한다.

이번 대회의 상금은 우승팀이 5억원, 준우승팀이 3억원, 나머지 4개팀이 각 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2013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1·2라운드 지명을 받은 ‘단국대 배터리’ 좌완 손동욱(오른쪽)과 포수 이흥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단국대 배터리’ 손동욱·이흥구 뽑았다

신인 드래프트 1·2차 지명 ... 10명 선발

‘단국대 배터리’ 손동욱과 이흥구가 프로 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1·2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0명의 신인을 선발했다. 단국대 배터리가 프로에서 한술밥을 먹게 됐고, 사촌 야구 선수도 탄생했다.

좌완과 포수 포지션이 약점인 KIA는 즉시 전력감으로 단국대에서 호흡을 맞춰온 손동욱과 이흥구를 1·2라운드에서 지명했다.

183cm, 85kg의 좌완 손동욱은 직구 최고 구속 148km로 이번 대졸 예정 선수 중 최고 구속을 자랑한다. 포크볼을 주무기로 체인 지업과 슬라이더가 좋으며 삼진을 잡는 능

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2라운드에서는 포수 이흥구가 선택됐다. 이흥구는 올해 대학야구에서 타점상과 홈런 상을 수상할 정도로 파워가 좋고, 강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이효상(경희대·투수)은 187cm, 90kg로 체격 조건이 좋으며 직구 구속은 147~8km다. 4라운드 지명을 받은 박효일(동의대·내야수)은 파워와 함께 수비 능력을 갖춘 대형 유망주로 평가 받는다.

KIA는 이외에 5라운드 고영우(성균관대·내야수), 6라운드 고영창(연세대·투수), 7라운드 박준표(동강대·투수), 8라운드 박찬(단국대·내야수), 9라운드 최준식(경기고·외야수), 10라운드 윤민섭(고려대·외야수)

KIA 지명 선수 프로필

순위	성명	포지션	출신교
1R	손동욱	투수(좌완)	부천고-단국대
2R	이흥구	포수	정충고-단국대
3R	이효상	투수	충암고-경희대
4R	박효일	내야수	상원고-동의대
5R	고영우	내야수	동성고-성균관대
6R	고영창	투수(사이드)	진흥고-연세대
7R	박준표	투수(사이드)	중앙고-동강대
8R	박찬	내야수	상남고-단국대
9R	최준식	외야수	경기고
10R	윤민섭	외야수	광주영고-고려대

등 총 10명을 지명했다.

동성고 출신인 고영우는 스위치 히터로 내야 전포지션과 외야수비가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이고, 진흥고 출신의 고영창은 강속구가 매력적이다.

사이드암인 박준표는 위력적인 슬라이더

를 갖추고 있고, 내·외야 수비가 가능한 박찬은 빠른 발과 파워를 갖췄다. 최준식과 윤민섭은 빠른 발이 돋보인다.

고영창과 윤민섭은 사촌 야구 선수로도 눈길을 끈다.

고영창은 좌완 임기준의 사촌형이고, 윤기두 KIA 운영실장의 아들이기도 한 윤민섭은 외야수 윤효섭과 사촌지간이다.

한편 이번 지명에서는 화순고에서 3명의 선수가 지명을 받았다. 투수 김정빈과 외야수 최민재가 SK의 선택을 받았고, 포수 이종하는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종범의 외조카로 유명세를 탄 진흥고 외야수 윤대영은 NC에 동지를 틀게 됐고, 진흥고 내야수 홍성은은 두산에 지명됐다. 동성고에서는 외야수 광범성이 삼성의 지명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꼭 우승 하겠다”

청소년 야구대표팀 출사표

처음으로 안방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 선수단이 반드시 우승컵을 품어 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청소년 야구대표팀을 이끄는 이정훈(북일고) 감독은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회 미디어데이에서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선배님들이 우승한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라며 “선수들의 컨디션과 정신력이 모두 좋은 만큼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또 “우리 팀의 강점은 팀워크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국 야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호주, 콜롬비아, 네덜란드, 미국, 베네수엘라와 예선 A조에 편성된 한국은 30일 잠실에서 벌어지는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예선 라운드를 치른다.

조3위 안에 들면 B조 상위 3팀과 각각 2라운드 경기를 치러 순위 매긴 뒤 9월8일 결승전을 벌인다.

박인비 준우승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박인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 기회를 놓쳤다.

에비앙 마스터스 우승자 박인비는 20일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이닉스의 린킨 리지 골프장(파72·661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선두를 추격했다. 하지만 박인비는 선두에 2타가 뒤져 브리타니 린시컴(미국)과 함께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선 미야자토 미카(일본)는 2타를 줄이며 끝까지 리드를 지켜 함께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연합뉴스